

蜂蝶의 주막인 花園인가
 밤이면 天空에 나타나서
 微笑에 넘치는 輝光으로
 塵世를 慰勞하는 別世界인가
 輝煌燦爛한 蓮花冠을 써고
 甘露의 淸淨法水를 부리주시는
 觀音聖母의 품안인가

등무여
 떠나면 가는곳이 어대인가
 不滿도 설움도 苦悶도
 感覺의 餘裕도 없고
 한점의 희갈도 없이
 球玉가리 誇고도 誇는
 永遠不滅의 安住處가
 또잇섯는가

昭和十三年(二九六五)一〇、三〇

—(駒澤一隅에서)—

失題

牛步行人

여복소 제발갑소
 손잡고 그리마오
 이사람李大師야
 큰일낼 여보모시
 어주비 이집만큰집
 無語兮 無語兮

저때라 마하살이
 이때라 보살인채
 해진뒤 새삼스리
 부흥부흥
 밤이라 날뛰는구면
 無乙兮 無乙兮

惡化의 기른술에
 寄虫群 刺滅코야
 불질너 버릴내니
 塔초차 문일가바
 그대로 두고보자도
 묵발될가 하노라

(十一月十二日—於東京)

卒業하는諸兄의面影

郭西淳

留學! 卒業! 錦衣還郷!! 이얼마나 好華로
 은 形容詞이나 이詞句自體가 好華로운것이랴면
 그것을 兼히 가질수잇는이와 이를 祝賀하는者
 間에 또한 明朗한 우습이잇서야만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將次 머지안어 떠나실 先輩들
 을 對하면 空然히? 짜증만나고 아지못할?
 疑問符號만이 胸襟을떠나지안는다.

이것이 무엇에起因한 怪事實일까 友情에倦怠
 이런가? 先後次第의 猜忌心이런가? 차라리前
 者나 後者에 그原因을 說明할수잇다면 우리情
 이 疎遠함을 恨할분이잇으나 以上の 兩者共히
 아님에야엇지랴 回憶하면 敎界의危機를報하는赤
 信號가 亂綱子の 사이엔소리와함께 나타났으니
 憂愁思慮의 悲喜交雜이 春風秋雨三十餘載! 七

千法徒의아우성은 氣盡絶息에 達하였다. 이危急
 存亡之秋를 무엇으로써 匡救하랴 敎界의危機이
 러하매 先輩들의 殉敎思想은 洋의東西를勿論하
 고 그들이잇는곳에는 머운피가 끌었는것이다.
 近頃數 十年을通하여 江戸에배운 先輩들의出陣
 이 또한 만었으니 보내는 後輩들의希望도 켜
 거니와 出戰하는勇士들의盟誓가 그얼마나 悲壯
 하였으랴 그들의抱負와 決意는 當時 그들이아
 니고는 모를것이다. 그러나 敎界의運이 衰頹
 인지 魔의作戲가 甚하였음인지 그들은 上陸第
 一步로 武裝의解除를當하고 敗殘兵이된者 或은
 機를乘하여 走狗의行動을 敢作하는者 吾不關焉
 의態度로서 生佛이되어버린者 옷지그數들 이로
 枚擧할수잇으랴 이러한事實을 目視하는 우리로